



기전대 축구부, 20회 1~2년 대학축구 22강 진출

전주기전대학 축구부는 경남 통영에서 열린 제20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에서 22강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2024년 대학축구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첫 대회인 만큼 47개 팀 간의 치열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기대된다. 이에 따르면 전주기전대학 축구부는 1차전과 2차전 모두 패하고 예선 마지막 3차전 원광대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극적으로 본선진출을 이뤘다. 전주기전대학 운동재활과 이종민 교수는 "강팀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조에서 한고비를 넘겼으니 앞으로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우경복 감독과 신재훈 코치는 "앞으로의 경기도 물론 어려운 경기라 될 것이지만 우리 또한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주기전대학 축구부는 신양스포츠평크 1구장에서 22강 상대 안동과학대와 치열한 맞대결을 펼친다.

/장은성 기자



남원 노암동, 1월 말까지 따뜻한 기부행사 진행

남원시 노암동이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연말연시 따뜻한 기부행사'를 1월 말까지 진행한다. 이 행사는 노암동 관내 YJ 건설기계, 비분책방 남원사회복지관 등의 기관 단체들이 모여 1인 가구 등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을 위해 기획한 행사로 남동회, 크리스마스 공연, 북(福) 꾸러미전달식 등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12월 23일, 24일에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비분책방에서 주민 40여 명을 초청하여 남동회와 공연(장원기 듀오)을 진행했다. 또한 올 1월 11일에는 YJ건설기계에서 기부한 금액과 지난해 크리스마스 기부 행사를 통해 모인 기부금으로 북(福) 꾸러미(떡국떡, 민두, 쌀 등) 30개를 직접 만들어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연말연시 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다 같이 어울리는 문화를 만들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것 같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자"고 결의를 다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군 자원봉사센터에 '이동식 세탁차' 전달

순창군은 지난 10일 순창군자원봉사센터에 이동식 세탁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이동식 세탁차는 '순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세탁차 내부에는 세탁기(25kg) 3대와 건조기(20kg) 1대가 포함되어 있다. '순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읍·면 소재지에 교육, 복지, 문화, 경제 서비스 공급기능을 확충하여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로, 2021년 농식품부와 순창군이 농촌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순창군 자원봉사종합센터는 이동식 세탁차를 이용하여 오는 3월부터 주 3~4회 읍면 마을 곳곳은 물론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이동세탁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성공 추진 결의

무주읍 이장협의회 회원·무주읍 행정복지센터 직원들

무주군 무주읍 이장협의회 회원들과 무주읍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1백여 명이 지난 11일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져 눈길을 끌었다. 이장협의회 회원들은 이날 행정복지센터 강당에 모여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환경정화 등 방문객 맞이와 위한 준비와 지역 홍보 등에 주민들이 직접 동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무주읍 이장협의회 신운주 회장은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에 있어서는 우리 무주가 대한민국의 수도라는데 굉장한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무주방문의 해 시행 원년을 맞아 무주읍이 방문객 유치와 맞이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이장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협의회 회원들은 이날 남대천과 시가지 일대에서 생활 쓰레기를 줍고 도로변(인도) 적치물을 정리했으며 상가들을 돌며 분리수거를 비롯한 지정 요일에 쓰레기 배출하기 실천을 독려했다.



한편, 김장미 무주읍장을 비롯한 무주읍 행정복지센터 직원들도 지난 3일부터 관내 32개 마을과 노인회 등 기관·사회단체, 경로당 등지를 찾아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시행을 알리며 적극적인 주민 동참과 손발맞춤을 당부하고 있다.

/무주=전문성 기자

연세대 미래캠퍼스 대학생들, 정읍 이평 아동들에 재능봉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대학생들이 정읍을 찾아 아동들에게 멘토링 활동을 펼쳐 지역에 활력이 생기고 있다. 11일 정읍시에 따르면 연세대 미래캠퍼스 봉사단 '송충이 봉사팀'은 12일까지 이평면에 위치한 도담지역 아동센터에서 재능봉사 캠프를 진행한다.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이 캠프는 교과목 학습지도, 진로·고민 상담, 예체능 분야 특별활동 등 멘토링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맞춤형 방학캠프이다. 봉사팀은 '긴 겨울만큼 길쭉해지기(송충이 겨울나기)'를 주제로 에너지 절약에 대해 교육하고, 교과목 학습지도, 창의적 체험활동,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캠프에 참여한 아동들은 "많은 선생님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 즐거웠고 시간이 금방 가버 아쉬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막례 여성가족과장은 "대학생들이 방학 중에 교육자원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먼 곳까지 찾아와 다양한 주제의 재능 나눔을 실천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키워내는 재능봉사활동을 해줘서 고맙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참여하는 모든 대학생들과 아동들이 모두 보람된 캠프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익산시자원봉사센터, 2024년 신년인사회 개최

익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엄양섭)가 11일 익산문화원 서풍관 2층에서 '2024년 익산시 자원봉사자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고 새해 힘찬 출발을 일렷다. 익산시 관제와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신년인사회는 자원봉사를 통해 배려와 나눔, 실천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우수봉사자에 대한 시상식을 시작으로 이사장 신년사 내빈축사, 자원봉사단체 소개, 케이크 커팅,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재능봉사가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익산호스피스센터 봉사단의 떡국 나눔을 비롯해 △담소교육예술회원 방한제·친환경 키링만들기 체험 △생명구조 현형봉사대 응급처치교육 △귀한몸 이혈봉사단 이참봉사 △수기봉사단 어르신 차 봉사 △익산문화원 공연봉사단 색소폰·전통악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정읍시 산외면,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 개최

정읍시 산외면은 지난 10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38명을 대상으로 발대식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근무 시 유의 사항과 일정 등 사업 진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했다. 또 노인일자리 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엔 선발된 38명의 어르신은 마을 곳곳에서 꽃밭꾸기, 쓰레기줍기 등 환경정비 활동을 한다. 귀창원 면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안전하게 활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소방서, 작년 주택용 소방 피해저감사례 홍보

정읍소방서는 작년 1년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를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작년 한해동안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용하여 피해를 저감한 사례가 2건이 있었다. 2023년 3월 2일 오후 9시경 내장상동 한 주택 마당에서 탁탁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보일러 배관 화재를 인지하여 119에 신고 후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하여 자체 진화한 것을 인지하고 가정용 소화기를 이용하여 자체 진화하여 큰 피해를 줄였던 두 번째 사례가 있었다. 모두 소방사에서 '더블보상제'라는 제도를 통하여 소화기를 2개로 지급 완료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란 시민 참여형 화재 예방 대책으로 주택 화재 시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2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2022년 법이 개정된 이후 주택 내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의 의무가 아직도 설치하지 않는 세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정읍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들께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쏟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 중국어 캠프 입소식 함께해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이 지난 10일 완주군인재육성재단에서 실시하는 '2023년 완주군 중국어캠프' 입소식에 함께했다. 2023년 완주군 중국어캠프는 10일부터 20일까지 10박 11일의 일정으로 원광대학교 인문대학에서 실시되며, 완주군 관내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31명이 신청해 전원 참여하게 됐다. 입소식에서 이주갑 의원은 "이번 캠프를 통해 완주군의 학생들이 중국어에 관심을 갖고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인재육성재단을 통해 중국어 외에 제2외국어에 대한 캠프와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캠프 활동을 통해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북이·통장연합회, 적십자 특별회비 모금 동참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는 전북이·통장연합회(회장 배종호)가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써달라며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임영욱 사무처장, 전북이·통장연합회 배종호 회장 및 이희풍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북이·통장연합회는 각 지역의 모금위원으로서 세대별 적십자회비 납부 안내, 마을 공동 납부 참여 확대 등에 앞장서며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재원 마련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전북이·통장연합회 배종호 회장은 "재난구조 활동, 위기 가장 긴급 지원 등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은 우리 도민들이 기부한 적십자회비로 이루어진다"며 "적십자회비 모금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적십자사가 인도주의 사업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도민분들께서 회비 모금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특별회비를 전달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주의 활동 재원 마련을 위해 '변하지 않는 희망, 적십자회비'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2024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안천면 기관사회단체 등, 진안사랑 장학금 기탁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은 11일 안천면 기관사회단체(안천면 의용소방대장 손정현, 체육회장 안창호, 체육회 부회장 김경오, 지역발전기금관리 위원장 박기상, 청장년회장 김명기 등) 및 직원일동이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에서 이정희 안천면장은 "지난해 안천면의 기관사회단체들의 모금과 안천면에서 환경개선 부담금과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읍면 쓰레기 3N 운동 등으로 얻은 포상금을 합하여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우리 지역의 미래 인재들이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춘성 이사장은 "안천면 직원뿐만 아니라 면 기관사회단체장들께서 모으신 소중한 후원금을 우리 군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기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진안군민의 관심과 사랑으로 조성된 기금이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인재 육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